

8-9세기 東아시아 海上貿易의 實態

- 張保臯의 海上活動과 관련하여 -

강 상 택*

<목

차>

1. 序論
2. 唐의 開放政策과 羈縻政策
3. 新羅의 政治的 變化와 社會構造

4. 張保臯의 活動과 日本
5. 張保臯의 中繼貿易과 南方文物의 交流
6. 結論

1. 서론

8-9세기는 유럽으로부터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중세의 세계무역이 형성되는 시기로 본다. 물론 무역의 경로는 육상과 해상을 통한 것이지만 특히 이 시기는 신라가 해상활동을 통하여 세계무역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시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오늘에 있어 한국의 해운, 해양, 국제 교역관계에 대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다.

신라의 해상활동은 圓仁 이 남긴 行記를 통해 새롭게 조명되었으며 특히 신라의 해상활동 담당자였던 장보고를 중심으로 해상활동의 실태가 밝혀졌다. 1923-1928년에 걸쳐 일본의 內藤鶴輔 박사에 의해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대외 팽창분위기와 관련하여 8-9세기 대의 관계사 연구를 하면서 圓仁 行記에 나타난 기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교역관계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후 1955년 E.O 라이사워 박사에 의해 신라인들이 세계 해상무역 시대의 초기 단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원인 행기에 나타난 기록들을 분석하면서 중국의 동부와 신라 그리고 일본 사이의 무역은 대부분 신라인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파악하였다. 한국의 해운, 해상무역과 관련한 일련의 연구들이 장보고의 실체를 중심으로 하여 김상기 교수(1933)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내의 자료만으로 그 시대의 해상활동이나 장보고의 실체를 규명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중. 일의 학자들은 각기 한. 중. 일의 자료를 중심으로 자국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유추하고 가정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논의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의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해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8-9세기 해상 활동에 관한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일조 하려는 것이다.

1. 8-9세기 신라의 해상 무역이 세계 무역사와 관련할 수 있었던 내적인 요인 즉 신라의 정치, 경제구조와 당의 개방정책에 관한 규명이다. 이의 규명은 동아시아의 교역 즉 세계 무역 사에 대한 제반 문제에 관한 이해를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8-9세기의 교역활동이

* 한국해양대학교 인문사회대

신라국내생산체제와 골품 귀족 및 민중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교역 품의 조달체제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장보고의 실체와 재당 신라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장보고가 해상 무역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었던 문제점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신라 본국의 기존 해상 세력의 유형과 형태에 대해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라이사워 박사가 주장한 상업제국의 무역 왕이라는 현실적 문제들을 규명하는데 있을 것이다.
3. 당의 정치구조와 당에서의 장보고 활동과정을 파악하여 청해진 실진 문제와 관련한 나. 당의 정치적 문제와의 연관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는 청해진과 신라 조정과의 관계 또 당과 청해진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장보고의 해상활동 성격을 규명 해야 할 것이다.
4. 장보고의 해상활동이 중세 세계무역과 관련하여 있다는 남방 문물과의 교류실태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해상 실크로드의 재정립이라는 중요한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일본은 실크로드의 남해로를 중국의 동남 해까지라는 기존 틀을 깨고 일본의 나라(奈良) 까지로 연결하고있는 실정에서 실크로드는 충분히 한국의 어느 지점까지 연결 가능하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II. 唐의 開放政策과 羈糜州

현재 우리는 세계 해상무역시대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다. 이와같은 세계해상무역시대의 초기단계에서 신라인들의 해상활동은 동아시아지역의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세계해상무역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었다. 8-9 C에 있어 중국의 양주(楊州), 廣東이 국제무역항의 성격을 가지면서 중근동 상인들

이 인도, 말레이반도를 거쳐 밀려들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되어야 할 것은 이 시기 중국 동부, 신라, 일본간의 무역은 신라인들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것이다.¹⁾ 즉 신라인 무역상 사회는 산동반도 남안 일대와 淮河 하류 일대를 따라 집중되어 있고, 이 지역의 수로를 연결하여 대운하와 淮河를 연결하는 초주는 신라상인의 중심 활동지라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신라인 조계는 중국 동남안의 회교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정도의 치외법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초기 세계 해상무역시대에 참여한 唐신라인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은 8-9C 해상무역의 성격을 이해는 데 필요한 것이다.

재당 신라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당의 정치구조와 사회구조에 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隋를 이어 정립된 당은 중국의 內地통일과 주변 諸民族에 대한 冊封制를 확립함으로써 세계제국을 형성하고 華夷의 천하관념에 기초하여 外夷에 대하여 포용적인 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개방정책의 특색은 기미주의 설치에 있었다. 기미정책은 타민족 국가에는 기미주를 두어 자치를 인정하되 그들을 느슨한 상태로나마 관료제적 지배 체계 내에 묶으려는 정책이었다.²⁾ 이와 같은 당의 개방정책은 주변국들에 대한 견제와 중앙집권적 황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절도사 체제(藩鎮)를 정립하였다. 물론 이러한 절도사 체제는 안사의 난후 당의 붕괴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지만 현종 조까지는 한시적인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당의 개방정책은 唐代 東中國海의 해안에 신라인의 거류지가 산재하고 있었던 사실과 장보고가 한·중·일 삼국간의 해상교통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삼국말기에서 통일신라기에 걸쳐 유교 불교의 書籍의 유입과 학자가 자유롭게 왕래한 사실은 당의 개방정책과 관련해서 고찰할 수 있는 점이다.

이는 唐戶令³⁾에 나타나는 이민족의 이주자에 대한 정책에서 볼 때 그들에게 관향과 관직을 주어

1) E.O Reischauer, 『Ennin's Travels in T'ang China』: 조성을 역 한울 1991, pp.277

2) 曹永祿, 「中國의 國際秩序의 推移와 韓. 日의 對應」 『中國과 東아시아』 國學資料院, 1997

3) 仁井田陞, 「唐令拾遺」, pp.238,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1995 pp.3

안주케 하고, 외지로 몰락하여 갔던 중국인이 귀속해 왔을 경우도 우대하고 있음을 볼 때, 당의 개방정책은 그 폭이 매우 넓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당대에는 물자의 교류에는 법규상 제약이 나타나고 있지만 人物의 왕래에 대해서는 법규상 명백한 규정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중국인과 사무역을 행할 수 있고, 또 중국인과 통혼할 수 있으며 동류의 외국인간의 문제는 그들의 본국법을 적용 받았다.⁴⁾

당의 개방정책에 따라 광주를 근거로 하여 발달한 중국 동남해역지역의 상업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은 한반도의 해상활동은 삼국시대로부터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당으로 들어가는데 기여했고, 이들은 산둥반도에서 淮河유역에 이르는 해안지대에 집단적 거주지를 이루어 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교민 사회는 거대한 해운체계를 이루었고, 이는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연관되어졌을 것이다. 이들 교민사회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재당 거주 한인들의 집단 사회는 838년 圓仁이 목격한 신라방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속해왔을 것이다. 또한 이 신라방의 인적 구성원은 반드시 신라인에 한하지 않고 당에 강제 혹은 자의로 이주한 고구려, 백제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신라, 고구려, 백제인으로 이합 집산한 것이 아니라 당의 일정한 지역에 뿌리박고 살아왔던 恒久的인 정주자였음을 주목해야한다. 따라서 그들은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민족성으로 당인들이 기피에 왔던 해상활동에 참여 해왔으며 그것들을 통하여 생계의 수단을 삼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통일 신라후 신라인으로 통칭되어 왔고, 신라인 사회조직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治外法權의인 자치권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면 먼저 僑民社會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으로 이주되어진 유이민의 실태를 파악해보기

로 한다.

① 新羅 流移民의 실태

신라 3국 통일 후 유학이나 求道를 목적으로 入唐하여 장기간 체류하는 자가 많았고 그 중에 육두품 출신의 金雲卿, 최승우 등 唐에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58인이나 되었다.⁵⁾

또한 헌덕왕 8년(816)에는 흉년이 들어 170 餘人の 신라 飢民이 浙東地方으로 이주하여 먹을 것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이주해간 신라인들은 절동 지방인 浙江省의 楚州, 滌水, 楊洲 등지의 신라방 주민이 되었을 것이며 이들은 해상생활의 종사자가 되었을 것이다.⁶⁾

문성왕 2년(840) 張保臯의 활약 시에는 使臣의 왕래도 없었는데 質子와 留學生 105명을 귀국시켰던 사실을 통해서 이전부터 많은 신라인이 당에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

② 高句麗 流移民의 실태

고구려 멸망(668)이후 신라에 흡수되지 않은 고구려 유민 중에는 唐朝廷에 의해 강제로 中國內地에 이주된 수가 적지 않았다.⁸⁾

또 669년(三國史記 기록)에도 38,300戶의 고구려인이 江淮의 남쪽과 山南 지역에 이주되

었음을 알 수 있다.⁹⁾ 당에 이주된 고구려 유민 중에는 男生의 아들 獻誠과 같은 왕족인 高仙芝, 王恩禮, 李正己 등의 귀족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중 당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출세한 사람도 적지 않다.

③ 百濟 流移民의 실태

660년 백제 멸망이후 당에 강제 이주된 유민들도

4) 仁井田陞, 『中國法制史』 PP. 682

5) 鄭元容, 『文獻撮要』 卷7, 東國入唐登第條

6) 『舊唐書』 卷199上, 新羅傳, 元和11年

7)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 文聖王 2年條

8) 李丙燾, 「高句麗의 일부 流民에 대한 唐의 押戶政策」, 『漢檀學報』 25-27合輯, 1964 pp.5-10

9) 『三國史記』 卷22, 高麗傳. 『冊府元龜』 卷100, 外部亡滅條

많았다. 삼국사기 기록에는 義慈王, 太子 등 58인 이외에 大臣 壯士 88인과 백성 12,807인이 당에 이주되었다고 한다.¹⁰⁾

이렇게 기록에 남겨진 이주민 외에도 많은 수의 유이민이 중국으로 이주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이주민들(고구려, 백제, 신라유민)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족 집단으로서 신라방, 고려방을 이루어 생활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동족집단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장보고는 또한 그들의 생활기반을 중심으로 해상활동을 이루어 갔을 것이라는데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三國史記」 「新唐書」 「舊唐書」 「樊川文集」 등의 1차 사료에는 청해진이 설치된 828년 4월 이전의 장보고 행적에 관하여 그가 당의 서주로 들어가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는 극히 단편적인 기록만 남겨 놓았을 뿐 828년 이전까지의 장보고 행적에 관한 것은 거의 공백으로 남아 있다는 문제 때문에 교민사회와 장보고가 어떻게 연관지어질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연구자들의 관심일 것이다.

圓仁行記는 신라 교민사회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된 자료이다.

圓仁行記 중 山東 赤山 淸寧縣을 중심으로 한 沿岸 일대의 신라인 사회를 관장하였던 押衙張詠이나 淮河 유역의 신라방 愬官 薛詮, 劉愼言 등의 인물은 재당 신라인 사회에서 일종의 신라 영사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중국정부에 대한 관계는 공적인 것이나 本國정부(신라)에 대해서는 私的이요 독립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押衙나 총관 등이 당의 관직이기 때문에 당의 지방관제 하에서 당의 명령을 수행하는 공적인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재당신라인을 총괄할 수 있는 自治的 職責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張詠이나 薛詮, 유신언 등은 장보고의 사적인 부하로서 행동하였다고 본다.

이는 장보고가 청해진 대사로 귀국한 후 장보고에 의해 건립된 적산법화원의 관리자가 林大使, 王勳, 張詠 이라고 했을 때 이들은 실질적인 장보고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장보고가 무령군 군중 소장으로서 실력을 행사했을 때 신라 교민사회에 대한 그의 역할은 매우 컸을 것이며 또한 그의 폭넓은 성격은 충분히 교민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해상무역에 관한 제반의 문제들을 관리해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장보고는 이민 1세대로서 오랜동안 중국사회에 토착화되었던 교민 사회를 이끌고, 羅·唐·日의 海上활동을 주도해왔던 무역 왕이었던 것은 사실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III. 新羅의 政治的 變化와 社會構造

8-9 C에 걸쳐 나타난 신라의 사회구조 변화는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크게 연관되어지고 있다. 특히 골품제의 모순과 관련된 정치적 변화는 귀족적 특성을 가지는 병든 도시문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신라의 해상 무역이 가지는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통일전의 신라가 고구려, 백제와 대항할 수 있었던 경제력은 울산, 경주, 영덕 등의 철 생산으로 인한 농업 생산의 급증과 목축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반민중의 경제적 성장이 바탕이 되었다. 이는 지증왕 대에서 진평왕 대에 걸쳐 나타나는 水陸交通의 정비문제¹¹⁾를 통해서도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전의 신라는 경주, 울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의 확립과 함께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했다고 본다.

물론 일반민중의 경제구조에 관하여 논해야 하지만 8-9C 이후의 정치구조와 사회구조의 변동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정리하기로 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나타나는 수도 경주의 급속한 팽창¹²⁾은 수도의 거대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울산을 문호로 한 생산도시였던 경주는 골품 귀족들의 소비도시로 전락하고 있었다. 「三十五金八宅」을 비롯한 중앙 귀족의 표면적인 번영은 통

10) 「三國史記」, 卷 28, 百濟本紀, 義慈王條

11) 「三國史記」 卷4 新羅記, 智證王 3年1月條 「-又制舟楫之制」, 眞平王5年 春正月條 「始置船部」

12) 「三國史記」 卷5 文武王 4年條 「戶數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戶」

일 신라의 경제체제를 퇴색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삼국사기(卷10) 헌덕왕 8년조에 나타나는 「西邊州郡大飢」 「年荒民飢」이라는 기사는 바다를 건너 중국의 질동까지 식량을 구하러 떠나고 있는 신라 하대의 사회구조와 신라경제가 균형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골품제의 대립과 관련하여 나타난 해공왕 이후의 대공의 난(767년)을 중심으로 155년간 20왕이 교체되는 신라 下代에 들면 더욱 심각한 상태를 보이게 된다.

장보고의 등장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渡唐하였던 실례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문무왕을 전후하여 당문물의 섭취에 적극적인 태세를 갖추었고 또 통일 후 전쟁 없는 안일을 즐기는 신라귀족들은 당의 長安 생활을 모방하는데 급급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민들이 할 수 있었던 대응책은 도적이거나 타국으로의 流亡이었다. 여기서 漂流民, 私商, 또는 海賊이라 불리우는 자들에 의한 사무역의 성행은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사무역의 발전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지방민의 궁핍과 饑饉에 반하여 귀족들의 생활은 사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金入宅」 「四節遊宅」¹³⁾의 기록은 수입품 소화시장의 확대와 지배계급의 무역품 수출 능력의 증대를 시사해 준다하겠다. 이 시기에 나타난 특징으로서는 조공무역을 통한 수출품은 대부분이 사치품이고 노비도 수출품으로서 당시 해상세력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외무역은 귀족들의 사치품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해 조공 형태의 교역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주목되어지는 것은 해상 교통수단의 발달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발해와의 적대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활동되어져왔던 山東登州-遼東沿岸-

西海岸-唐恩浦(南陽)에 이르는 항로를 상실하자 신라는 登州赤山으로부터 황해를 직접 횡단하는 항로가 활용되어 사무역 활동은 증가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즉 羅·唐간의 각 국가가 가지는 정세의 변화는 항해술, 조선술의 발달과 아울러 장보고의 해상활동은 동아시아의 해상권을 충분히 장악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 圓仁行記¹⁴⁾를 통해서 보면 양주에는 신라인 무역상이 있었다. 즉 일본어를 잘하는 대일 무역상 王請이라는 新羅人 상인이며 중국인 張覺齊와 同業인 듯 하다.

이렇게 볼 때 揚州에는 신라인 海上貿易商이 많아 무역으로 巨富가 된 신라인 무역상들은 王請, 王宗 이외에도 많았을 것이다. E.O Reichauer는¹⁵⁾ 白居易 時文을 모두 買占하여간 신라인이 있었다는 것과 또 당시의 著名畫家의 작품 10여점을 高價로 매입해간 신라 상인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揚州는 신라 무역상 뿐 아니라 波斯國, 占婆國 상인도 대거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라의 정치 사회구조의 변화와 당의 세계 정책을 통해 나타난 장보고의 해상활동은 청해진 설진이라는 문제와 연결하여 해상무역왕국의 건립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전개하게 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장보고의 청해진 설진과 관계하여 나타나는 기존 신라인의 해상활동을 파악하는 일이다. 지증왕대 이후부터 나타나는 선박의 운행과 신라하대에 걸쳐 발달한 선박·항해술은 기존의 신라인 즉 기근과 고통에서 벗어나려했던 민중들과 어떻게 관련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8세기 말엽 신라는 호화스러운 생활과 사회풍조가 만연하는 가운데 신라경제의 몰락과 사회의 혼란은 내륙지방 농민들이 流民이 되거나 도적이 될 때 沿海岸 지방의 농민이나 어민들은 해외로 流亡하였고 일부는 선박을 통하여 해적이 되어 신라·중국·일본의 연안지방을 소란케 하였다. 그 실례로 헌덕왕 4년(812년)에는 신라의 해적선 20여척

13) 李永澤, 「張保臯 海上活動에 관한 考察」 「論文集」, 韓國海洋大學, 1997 pp. 61

14) 圓仁, 「入唐求法 巡禮行記」 會昌 846年 1月8日條 「新羅人 王請 來相看 是本國弘仁十年 流着出州 國之唐人 張覺齊 同乘之人也 爲交易諸物」

15) E.O Reichauer, 前掲書

이 대마도에 침입을 하였고, 그 다음해도 110인이 일본의 小近島에 상륙하여 그 곳 주민들과 싸운 적이 있으며, 경문왕 9년(809년)에는 신라 해적들이 일본의 지방민이 上貢하는 면을 약탈하기도 했다. 이는 선박의 건조와 항해에 익숙한 신라인의 해상 활동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보고의 청해진 설진 이전에 나타나는 신라상인들의 활동 양상을 일본측 사료를 통해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8C 하반기의 속일본기에 나타난 기록은 일본으로 들어온 신라 물품과 교환하기 위하여 7만여톤의 면을 일본 왕실에서 귀족 고위층에게 하사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¹⁶⁾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장보고의 渡唐(810년 경) 前부터 新羅人의 대규모 해상무역이 성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 신라 本國의 사정은 해공왕의 등장 이후 골품귀족들의 난이 겹쳐 발생하였으며 신라의 귀족난립기가 시작되고 있는 시기였다. 이렇게 볼 때 기록에 나타나는 대규모 해상무역의 실체는 재당 신라인이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추정이 가능하다면 장보고의 본격적인 활동 이전부터 재당신라인 사회에서는 해상 무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장보고의 청해진 설진 전·후 圓仁行記에 나타나는 재당 신라인들의 해상 무역활동은 新羅·唐·日本에 걸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는 圓仁行記의 기록에서 보여주었던 신라인 무역상 사회는 산동반도의 남안 일대에서 淮河의 하류일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초주에도 거대한 신라 무역상이 형성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부분은 장보고의 해상무역활동과 기존의 재당 신라 무역상 또는 본국 신라인의 해상활동과 어떻게 연결 지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보고가 가진 당의 서주 무령군 소장이라는 세력권이 이정기

일가의 몰락 이후 산동반도 일대의 재당 신라인을 규합 통괄할 수 있었다는 기존의 연구를 긍정해야 할 부분이다.

IV. 張保臯의 活動과 日本

장보고의 해상활동은 해운이 무역으로부터 분리되기 전까지는 무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보고의 해상무역은 곧 해운에 관한 고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보고의 해상활동의 일면을 일본과 연결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통일신라 下代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가 극동해역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그 당시 일본은 신라 해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신라 해운의 발달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일본서기의 기록 중 일본의 건당 유학생, 학문승과 당으로부터 일본으로 귀환되는 포로들까지 신라 사절의 선박으로 송치되었고,¹⁷⁾ 續日本記에 唐使가 新羅使를 통하여 일본에 使命을 수행하였으며¹⁸⁾ 또 續日本記에 재당 일본 조공사와 유학생을 新羅使에 위탁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통일신라시대의 일본은 신라 航運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라이샤워 교수가 <중국 중세 사회로의 여행>에서 圓仁行記를 분석하면서 소상히 밝혀주고 있다.¹⁹⁾

원인행기중 838년의 일본 조공선 4척이 모두 조난 당하고 있음과 839년의 일본 조공사 일행이 신라인이 운항하는 9척의 신라선으로 귀국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라이샤워 교수는 당시 일본인은 계절풍에 관한 지식이 없고 신라인만이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당시의 항해술은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훨씬 우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신라인의 항운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당과 일본과의 해상교통을 충분히 재패하

16) 『續日本記』, 卷29 神護景雲 2年10月 甲子條

17) 續日本記 卷25 天平寶字 8年 7月 甲寅條

18) 續日本記 卷30 神護景雲 3年11月 丙子條

19) E.O Reischauer: 前掲書

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재당 신라인의 항운기술을 흡수하고 본국의 연안의 군소 해상 활동자를 통합하여 청해진을 설치한 장보고는 8-9세기의 해상왕국을 건립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가질 수 있었다. 먼저 일본과의 관계를 속일본후기(권 9. 承和 7년 己巳條)에 나타나는 기록과 圓仁行記에 나타나는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성왕 2년(840)에 장보고는 北九州의 太帝府에 使者를 파견하였는데 일본측은 「人臣無外交」라 하여 장보고와의 교섭을 거부하였지만 장보고와의 교역은 승인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장보고가 일찍 일본의 정부와 교섭관계에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실례로 일본의 구법승 원인이 839년 일본을 떠날 때 북구주 지방관인 筑前太守가 일본 조공단 및 원인의 보호를 장보고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또한 속일본후기(권10. 承和 8년 戊辰條)에 나타나는 기록은 그후 장보고의 대 일본 교역관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나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즉 장보고는 일본에 廻易使라는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었고 일본정부가 회역사의 무역품을 민간과의 자유교역을 公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이 기록중 일본 정부는 일본 민간이 가산을 탕진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볼 때 나·당 물품의 수요가 대단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해진과 일본 사이의 무역이 얼마나 빈번하였나하는 것은 장보고 사망 후에도 회역사가 계속해서 일본으로 갔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속일본후기. 권12. 승화 9년)

V. 張保臯의 中繼貿易과 南方文物의 交流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장보고의 해상활동은 동아시아지역의 해상권 재패라는 입장에서 고찰되어졌다. 8-9세기에 나타나는 신라 본국과 재당 신라인들에 의한 해운활동은 장보고의 활동과 연계되어 세계해상무역의 초기 단계에 참여하고 있었다. 당시 세계해상무역의 주류는 中近東 무역 상인들에

의해 중국의 양주까지 미치고 있었고 그들의 세계적인 무역품을 일본 및 신라본토까지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은 곧 장보고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남방 문물의 교류와 관련하여 발표된 논문은 이 용범 <처용 설화의 고찰 - 唐대 이슬람 상인과 신라>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 상인의 무역품> 과 무함마드간수의 <신라서역 교류사>가 있다. 이들의 기연구를 통해 장보고의 중계무역과 남방문물의 교류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당의 중기 이래 자바 馬末半島 버어마 등 동남아 지방에서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한 아라비아 상인들이 東進하여 광주·洪州·항주에 정착, 운하를 통해 소주·양주까지 연결되는 구간은 아라비아·페르시아계의 상인들이 붐비는 국제항이었다.

동서 6천리의 길을 따라왔던 육상비단길은 아라비아의 조선 및 항해술의 발달에 따라 해상수송으로 그 수단이 바뀌어지면서 당의 문물과 동남아의 문물은 폭넓게 그리고 다량으로 교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무역에 참여하고 있던 장보고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사치품의 욕구가 팽배한 말기 신라에 있어 어떤 형태로든 수용되었고 또 신라의 상품들도 그들에 의해 수출되어졌을 것이다. 이들 동남아의 상품은 장보고에 의한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도 있으며 또한 아라비아 상인들이 신라에 직접 내왕하였을 것이라는 문제도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직접 내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슬람 상인이 群集하고 있던 양주, 명주는 단시일 내에 왕래할 수 있는 서남해안의 항로가 개척되었고, 이 항로를 통해 신라로 직접 내왕했을 것이라는 논거는 삼국유사에 보이는 처용 설화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또한 중계무역의 경우 동시대에 일본지역에도 많은 東南亞 물품이 교류되고 있었음은 정창원에서 발견된 로마제 유리제품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침향, 육계, 사향 등은 신라산물이 아닌데도 신라가 일본으로 수출했다는 기록은 중계무역의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다. 우선 三國史記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 동남아산출의 文物이 신라인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권33) 雜誌(2) 「色服」 「眞骨女는 빛(梳)은 玳瑁에 瑟瑟을 細한 것을 禁하고…冠에도 瑟瑟로 細한 것을 禁한다」 라는 기록의 玳瑁는 필리핀 자바에서 서식하는 바다거북이며 슬슬에 관한 것은 중국과의 견해 차이는 나지만 일반적으로 이란계 에메랄드로 이야기되어진다.

三國史記 雜誌 2 「器用」 에 「六頭品, 五頭品은 … 또 虎皮, 毳유, 담등을 써서는 아니되며… 」 라고 하였다. 이는 다시 四頭品에서 백성에까지 사용을 금하고 있다. 여기서 구유와 담등은 양모를 주성분으로 한 문양 있는 페르시아 직물로 알려져 있다.

同書 잡지(권2) 「色服」 에… 「眞骨女の 표에 金銀絲 翡翠毛를 수놓는 것을 금한다…」 라는 이 기사의 비취모는 비취조의 털로서 캄보디아산 이었다. 또 同書에 「眞骨은 車의 재료로서 紫檀, 沉香을 써서는 안된다」 라는 기사 중 자단은 자바, 스마트라에서 나오는 향기있는 목재이며 칩향도 스마트라에서 나오는 향기있는 재목이었다. 그 외에도 사찰에서 사용된 乳香도 아라비아 깊은 산속에서 나오는 쫄이었다. 이외에 아라비아 페르시아의 유리그릇을 신라의 귀족들이 애용하고 있었음은 현재 남아있는 신라 유물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금지사항은 신라가 당과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장안의 유행이 경주의 특수층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통일후 신라 사회 구조의 변모에 따라 사치품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지는데 연유한다고 본다. 이러한 남방문물의 교류는 원인의 행기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당시 이슬람 상인들의 집단 거주 구역인 명주, 양주 부근에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신라방)가 있었고, 이들은 자연적으로 이슬람 상인과 접촉하면서 본국을 상대로 한 무역활동으로 사치성 상품의 다량 유입을 유추해볼 수 있다. 여기서 추론되어야 하는 과제는 8-9 세기 해상무역의 실태는 재당 신라인 사회와 긴밀한 협조 내지 그들을 통괄할 수 있었던 장보고의 활동이다.

실제, 장보고의 해상활동은 9세기에 이르러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의 활동은 이슬람 상인들의 무역과도 깊은

관계에 놓여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병행하여 정리되어야 할 부분은 이슬람 상인의 직접 내왕이란 점과 해상 실크로드의 재확인이라는 점이다. 이용범 씨와 무함마드간수씨에 의하면 아랍문헌<쿠르바지다의 저서 「諸道路 및 諸王因志」)에 신라에서의 수입품이 보이며 또 Sila라는 표기와 신라를 황금의 나라로 표기하고 있다.

경남 울주군의 반구대 유적에는 낙타를 타고 오는 행렬도나 페르시아식의 선박그림 등을 통하여 볼 때 이슬람 상인들의 직접 신라 내왕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이용범 씨가 처용의 실체를 이슬람상인이라 추정하고 있고, 또 무함마드간수씨도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음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진다.

이와 같이 세계중세무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이슬람상인과 신라상인(장보고)의 직접적 내왕과 접촉은 신라무역이 동아시아 지역의 세계 중세 무역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추된 세계중세 무역과 관련하여 해상 실크로드에 관한 과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1980년대 일본은 실크로드의 남해로를 중국의 동남해까지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일본의 나라(奈良)까지로 연결하고 있고 이는 근래 국제적으로도 승인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지중해로부터 홍해, 아라비아해, 인도양을 거쳐 중국 동남해안으로 잡고 있는 해상실크로드는 중국의 동남해안에서 한국의 울산만 또는 당항진까지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나타나는 울산만 개운포에서 헌강왕(9C)과 7용의 만남, 그리고 그 중 한 마리용을 정치에 관여시켰다는 기록 등 정치에 참여시킨 용의 자태를 「沈目高鼻」라 표기한 것을 보면 이는 분명히 이슬람계 상인이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울산만의 개운포와 처용 설화 중 처용은 분명 이슬람상인의 본국 내왕과 연결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며 또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는 울주 반구대 벽화 이외에도 경주, 패룡(원성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의 武人석상은 분명 이슬람 계의 형상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경주일원에

놓여 있지만 아직은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우선 8-9C에 있어 세계 중세무역권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이슬람 상인들은 중국의 명주, 양주를 거점으로 활발한 무역활동을 했다면 거기로부터 5-6일이면 흑산도에 도착되고 또 흑산도에서 한려수도를 거쳐 신라 수도인 경주의 입구인 울산만에 도착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일 수도 있다.

VI. 結 論

8-9세기에 있어 동아시아 세계의 지표는 羅末의 무역사 즉 장보고의 해상활동을 중심으로한 중세 세계 무역사의 재조명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 세계의 통상 무역은 한·중·일 간의 우연하고 부정기적 통상 무역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동아시아 사에 있어 일정한 국제질서를 통하여 상호교역이 확대되고 있었다.

특히 9세기에 들어 남양지역의 무역활동은 중국 동남해안지역 즉 양주나 광주 같은 항구 도시에 이슬람 계의 집단거주지역이 형성되면서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사회 경제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본다.

여기서 주목되어야 할 부분은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역은 상호 연결과 빠른 교역망을 구축하고 동아시아 무역 체계의 중심적 자리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장보고의 실체는 재당 신라인들의 활동을 통괄할 수 있었던 보호자로서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되어진다. 여기서 주목되어야 할 것은 8-9세기의 장보고의 활동과 관련한 동아시아 교역사의 고찰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장보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국내자료의 부족으로 당·일본의 자료와 원인 행기를 통하여 장보고의 활동을 조명해왔다. 원인 일기는 장보고의 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이며

이를 통해 라이사위 교수가 8-9세기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교역관계를 밝혀내는 고전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기 연구자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밝혀져야 할 몇 부분만 발췌하여 그 예시를 하였다.

먼저 장보고와 재당 신라인들과의 관계와 신라 본국의 기존 해상 세력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당의 정치 사회구조와 신라의 정치 사회구조를 밝혀야한다는 예시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의 개방정책 아래서 나타나는 신라방의 성격과 당의 변진과 절도사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은 이정기 일가 몰락 후 나타나는 장보고의 활동양상에 대한 파악이다. 그리고 장보고의 청해진 설진과 신라 정치구조와의 관련 등은 8-9세기에 있어 일본의 정치구조와 미숙한 해운 활동에 따른 재당 신라인의 역할 등을 이해하여야 하며 일본에 대한 장보고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그 다음 해양 실크로드의 설정문제에 관한 관심이다.

이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나타나는 남방문물교류와 평민에까지 번져간 남방무역품의 실태는 이슬람계 상인의 내왕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추론되어지고 있었던 사실들을 규명할 수 있어야겠다. 그것은 일본이 실크로드의 한계를 일본의 나라까지 설정하고 있다면 우리의 경우는 더욱더 명백한 자료와 유물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실크로드의 한계를 중국 남해로부터 - 한국의 울산 만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국제적 무역관계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장보고의 해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의 역사적 실체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